

초등 입문기 학생들의 국어 능력 연구¹⁾

구 영 산(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요 약 》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 검사는 초등학교 입문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학습이 시작되기 전 실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 중 1학년 학생들이 학습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성취기준을 선별하였으며, 이를 지필형 검사와 수행형 검사로 나누어 문항화하였다. 검사 결과 초등학교 입문기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각 성취기준별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학생 변인에 따른 수준 차이도 볼 수 있었다. 전체 검사 결과를 보면, 전체 학생 2,635명에 대한 평균은 19.4655점, 표준편차는 3.5391로 나타났다.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 검사 결과 전체 19개 문항 중 16개 문항에서 학생들이 정답률 80% 이상을 보였다. 그러나 말의 재미를 주는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 표현하여 쓰기에서는 정답률 70% 미만,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기,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 파악하기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정답률 50% 미만을 보였다. 변인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변인은 성별이었다. 전체 19개 문항 중 15개 문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또 다른 주요 변인은 지역이다. 14개 문항에서 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읍·면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취학 전 교육 변인과 다문화 가정 변인은 성별이나 지역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 출발점 행동 설정을 위한 주안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초등 입문기,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 국어과 교육과정, 출발점 행동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입학 직후 1학년 학생들의 국어 능력 현황을 조사하는 데에 있다. 국어 능력은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그 중 하나가 문해력(literacy) 차원에서 그것

1) 이 연구는 “백경선, 박순경, 권점례, 구영산(2012).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 수학 교육과정의 수준 적합성 제고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2-3”에서 본 연구자가 다른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ysgoo@kice.re.kr

을 다루는 것이다. 본고에서 쓰인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항존적이거나 보편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다. 출생 이후 학교 국어교육을 받기 전까지의 읽고 쓰는 능력을 초기 문해력으로 본다면,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은 초기 문해력 단계에 있는 ‘초등학교 입학 직후’의 학생들이 보이는 언어 능력의 정도를 강조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Whitehurst & Lonigan, 2002).²⁾

기존 국어교육 연구 안에서의 문해력은 주로 읽기, 쓰기 교육과 관련된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문해력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그 개념역 또한 확장되었다. 문해력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논의한 최인자(2001), 박인기(2002) 등의 연구나, 매체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 관여하는 문해력의 속성을 논의한 김대행(2002), 정현선(2007), 윤여탁 외(2008) 등의 연구, 직업 상황과 관련지어 문해력의 특성을 논의한 노명완, 이형래(2007) 등의 연구가 그 예에 해당한다.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관점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이들 연구들은 문해력이 특정 맥락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는 개념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특히 아동기의 문해력 발달을 논의한 김봉순(2011)의 연구, 초등학교 저학년 문해력의 개념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논의한 정혜승(2010)의 연구, 기초 문해력 교육을 사회 중심적 관점에서 논의한 심영택(2010)의 연구 등은 언어 발달의 관점에 입각하여 초기 문해력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은 초등학교 입학 직후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의미하되, 본격적인 국어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교 국어교육의 영향력이 미치기 전의 시점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국어 능력의 정도에 초점이 있다. 특히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이 문제시된 이유가 국어과 교육과정의 출발점 행동 설정을 위한 근거 확보에 있는 만큼, 본고에서 다루는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은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내용 수준에 대비되는 초등학교 입학생의 언어 발달 수준을 근간으로 성립된 개념이다.

이와 같은 국어 능력에 대한 개념 설정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 학교 국어 교육이 기반으로 삼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시작점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초등학교 입문기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조사하는 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첫째, 학교 교육 제도 안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둘째, 초등 입문기 학생들의 국어 능력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어과 교육과정의 출발점 행동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이상에서 기술된 목적과 의의를 바탕으로, 다음 2장에서는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 검사 도구

2) 연구사의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국어(언어)능력 검사 도구(개발)와 관련된 연구와도 일정 부분 맥락을 공유한다. 박수자(1996), 박정진(2005), 이형래(2008) 등의 연구가 그에 해당되는데,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입문기, 즉 입학 직후 국어 교과 수업이 시작되기 전의 학생(들) 국어 능력을 대단위 표집에 기반을 두고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제작 및 시행 방법을 기술하고, 자료 정리 및 분석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자료화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 입문기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기술, 분석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3장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국어과 교육과정 출발점 행동 설정 시 고려할 점을 중심으로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 검사 결과를 해석, 논의하고자 한다.

Ⅱ. 조사 내용 및 방법

1. 검사 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 검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의 출발점 행동을 재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중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학습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별하여 이를 기반으로 검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가 고려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검사 내용 선정과 관련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은 학년군 개념이 도입된 교육과정으로, 1학년 교육 내용은 2학년 교육 내용과 [1-2학년군]으로 묶여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1-2학년군] 성취기준 중 1학년에 보다 적합한 성취기준이 무엇인지를 판별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개발 연구(민현식 외, 2011)에서 제안한 학습 위계표를 일차적으로 참조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 5명과 교대 교수 1명이 중심이 된 문항 개발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학습 가능한 성취기준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로서 선정된 검사 문항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와 같다.

〈표 1〉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 검사 내용

내용 영역	문항 번호	성취기준	검사 요소
듣기·말하기	3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도를 고려하여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한다.	· 이야기를 듣고 내용 이해하기
	10	(4)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자신의 경험 말하기
	11-(1)	(2) 듣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	· 칭찬 받을 때의 기분을 적절히 말하기
	11-(2)		· 화가 날 때의 기분을 적절히 말하기
	11-(3)		· 슬플 때의 기분을 적절히 말하기

내용 영역	문항 번호	성취기준	검사 요소
읽기	9-(1)	(1) 글자의 짜임을 이해하여 글자를 읽고,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 받침이 없는 두 음절 낱말을 소리 내어 읽기
	9-(2)	(2)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 받침이 있는 세 음절 낱말을 소리 내어 읽기
	9-(3)	(3)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 다양한 자모음이 쓰인 낱말로 이루어진 글을 소리 내어 알맞게 띄어 읽기
쓰기	1-(1)	(1) 글자를 익혀 글씨를 바르게 쓴다.	· 받침이 없는 두 음절 낱말을 듣고 쓰기
	1-(2)		· 받침이 있는 세 음절 낱말을 듣고 쓰기
	1-(3)		· 다양한 자모음이 쓰인 낱말을 듣고 쓰기
	6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 들려준 이야기 속 인물을 상대로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7-(1)	(3)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쓴다.	·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 쓰기
	7-(2)		·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 쓰기
문법	2-(1)	(1)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 받침이 없는 글자의 짜임을 알고 쓰기
	2-(2)		·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알고 쓰기
문학	4	(3)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 들려준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 부분 파악하며 작품 이해하기
	5	(4) 작품 속 인물의 마음, 모습, 행동을 상상한다.	· 들려준 이야기 속 인물의 마음 상상하기
	8	(2) 말의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주는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다.	· 말의 재미를 주는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 표현하기

위의 검사 내용에 입각한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 검사 도구는 국어과 5개 영역에 걸쳐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세부적으로 듣기·말하기 영역 5개 문항, 읽기 영역 3개 문항, 쓰기 영역 6개 문항, 문법 2개 문항, 문학 3개 문항이 개발되었다. 영역별 문항 수를 기계적으로 각각 동일하게 맞추는 대신,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성취기준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도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영역별 문항 수를 결정하였다. 19개 문항 중 12개 문항은 지필형 검사로, 7개 문항은 수행형 검사로 개발되었다.³⁾

둘째 검사 문항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하여, 검사 내용으로 선정된 내용 항목을 중심으로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였다. 검사 대상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생으로 검사 시기는 교과 학습이 시작되기도 전인 3월 중순이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소위 '시험'을 보게 하는 일은 연구 참여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을 감수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문항 개발 과정에서 검사에 대한 초등 입문기 학생들의 심

3) 점수 배점은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자신의 경험 말하기(3점)', '다양한 자모음이 쓰인 낱말로 이루어진 글을 소리 내어 알맞게 띄어 읽기(2점)', '들려준 이야기 속 인물을 상대로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3점)' 등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대하여 정답이면 1점, 오답이면 0점을 부여하였다.

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각각의 문항이 검사 내용을 포함하되, 가능한 한 문항이 학생들에게 쉽게 느껴지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두 조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경우에는 전자를 최소한으로 만족시키는 한 후자에 무게를 두고 문항을 개발하였다.

셋째 검사 문항 개발의 검토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경로로 문항 검토 절차를 거쳤다. 먼저, 개발된 문항은 국어교육 전공자 2명과 교육과정 전공자 2명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문항 검토 시의 주안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각각의 문항이 그것이 검사해야 할 내용 항목을 제대로 포함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검사 문항이 초등학교 입문기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여지가 있는가하는 점이다. 문항의 타당성과 문항의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토 결과, 4명 모두 승인한 경우 해당 문항을 검사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개발된 검사 문항에 대해서는 예비 검사를 통해 최종 검토를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는 서울시 소재의 초등학교 2곳과 지방 읍면 소재의 초등학교 1곳에서 3월 초 실시하였다. 검사 도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및 교사 반응 전반을 관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검사 문항 수, 문항에 소요되는 시간, 문항의 진술 방식, 문항의 난도 등에 대한 적절성과 검사 시행 시 유의할 점 등을 확인, 점검하였다. 그 결과 확정된 검사 방식이 최종 검사 도구에 반영되었다.

2. 검사 시행 및 결과 분석

본 검사 시행을 위한 학교 선정을 위해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초등 입문기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검사 시행 방식에 입각하여 성의 있게 검사를 진행해 줄 교사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그러면서도 검사 시행 학교(학급)에 소속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서도 안 되는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다.

각 지역별 학교 및 교육 현황에 밝은 교육청 관계자의 도움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재의 5개 초등학교, 부산을 포함한 6개 광역시 소재의 5개 초등학교, 경기도를 포함한 9개 도 소재의 10개 초등학교(중소도시 소재: 5개교, 읍면 소재: 5개교) 등 총 125개 학교를 검사 시행 학교로 정하였다. 그러나 검사 시행 및 검사 결과 수집 과정에서 검사 시행 시기의 부적절함이나 검사 결과 미회수 등으로 인해 125개교 중 15개교를 제외한 110개 학교의 검사 결과가 자료화되었다.

지역별 검사 시행 학교 현황을 개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지역별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 검사 시행 학급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계
실시 학급 수	5	5	5	5	5	5	5	10	45
분석 학급 수	5	5	4	3	4	3	3	10	37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실시 학급 수	10	10	10	10	10	10	10	10	75
분석 학급 수	9	10	9	7	9	10	10	9	73

검사 대상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검사지 앞면에 교사가 표시한 학생의 주거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경험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본 검사를 통해 초등학교 입문기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위의 네 가지 변인(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다문화 가정)에 따라 학생들의 국어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 검사에 참여한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검사 참여자(학생)의 배경 변인 및 빈도

구분		빈도(명)	비율(%)
지역	대도시	659	25.0
	중소도시	1,105	41.9
	읍면지역	867	32.9
	무응답	4	.2
성별	남	1,340	50.9
	여	1,288	48.9
	무응답	7	.3
취학 전 교육 경험	없음	67	2.5
	있음	2,554	96.9
	무응답	14	.5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68	2.6
	일반 가정	2,525	95.8
	무응답	42	1.6
총 계		2,635	100.0

이상에서 기술된 검사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 검사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다. 검사지는 총 10면이며 1~8번은 지필형 평가로, 9~11번은 수행형 평가로 구성되었다. 지필형 평가는 20분 동안 실시되었으며, 수행형 평가는 학생들이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였다. 모든 문항과 문항에 딸린 〈보기〉는 교사가 두 번 읽어 주었으며 문항에 제시된 내용 이외의 추가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였다. 지필형 평가가 끝난 후 교사는 학생들의 검사지를 걷은 뒤, 학생을 개인별로 불러 수행형 문항에 대한 검사(9~11번)를 실시하였다. 수행형 문항은 국어 검사지에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채점하였다.

검사 결과 분석은 문항에 따른 반응과 정답률 산출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배경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t-test)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및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조사 결과

이 장에서는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 검사 결과를 검사 영역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전체 검사 결과

검사 결과 전체 평균은 19.4655점(배점 24점), 표준편차는 3.5391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 별 차이 분석에서는 모든 변인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19.9924점)와 중소도시(19.7222점)가 읍면지역(18.7543점)에 비해, 여학생(20.1242점)이 남학생(18.8582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취학 전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19.5141점)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17.6716점)에 비해, 일반 가정의 학생들(19.5271점)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17.8382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래 제시된 표는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여준다.

〈표 4〉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 검사 결과 전체(배점 24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지역	대도시(①)	659	19.9924	3.1668	28.450***
	중소도시(②)	1,105	19.7222	3.2283	①>③***
	읍면지역(③)	867	18.7543	4.0145	②>③***
성별	남	1,340	18.8582	3.7232	-9.379***
	여	1,288	20.1242	3.1853	
취학 전 교육	경험 없음	67	17.6716	5.3778	-2.789**
	경험 있음	2,554	19.5141	3.4661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68	17.8382	4.7019	-2.941**
	일반 가정	2,525	19.5271	3.4589	
전 체		2,635	19.4655	3.5391	

* $p<.05$, ** $p<.01$, ***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다음 절에서는 듣기·말하기 영역 전체에 대한 검사 결과와 이 영역에 속한 개별 문항의 검사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2. 영역별 검사 결과: 듣기·말하기 영역

듣기·말하기 영역의 검사 내용은 ‘이야기를 듣고 내용 이해하기’,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자신의 경험 말하기’, ‘자신의 기분 적절하게 말하기’ 등이다. 듣기·말하기 영역의 전체 평균은 6.0140점(배점 7점), 표준편차는 1.4086이다. 배경 변인에 따른 평균을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생들에 비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반면,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래에 제시된 표에서 보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 듣기·말하기 영역 검사 결과(배점 7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지역	대도시(①)	659	6.0971	1.3022	7.445**
	중소도시(②)	1,105	6.0878	1.3134	①>③**
	읍면지역(③)	867	5.8674	1.5682	②>③**
성별	남	1,340	5.9082	1.4558	-4.187***
	여	1,288	6.1366	1.3403	
취학 전 교육	경험 없음	67	5.5672	2.0243	-1.848
	경험 있음	2,554	6.0270	1.3881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68	5.7059	1.6845	-1.542
	일반 가정	2,525	6.0238	1.3957	
전 체		2,635	6.0140	1.4086	

*p<0.05, **p<0.01, ***p<0.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다음에서는 듣기·말하기 영역의 검사 요소별 검사 결과를 문항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 이야기를 듣고 내용 이해하기

문항 3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한다.’에 대한 검사 항목으로, 학생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90.93%이며, 배경 변인 중 지역, 성별, 다문화 가정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92.41%)와 중소도시(92.13%) 학생들이 읍면지역의 학

생들(88.35%)에 비해, 여학생(93.25%)이 남학생(88.81%)에 비해, 일반 가정의 학생들(91.52%)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80.88%)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아래 제시된 표에서 이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도를 고려하여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한다.								
검사 요소	이야기를 듣고 내용 이해하기			정답률	90.93	표준편차	28.72	변별도	0.478
🌈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잘 들어 봅시다 (3~6번).									
<div>깊고 푸른 바다에 무지개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무지개 물고기는 반짝반짝 빛나는 비늘을 가지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다가와 비늘을 나누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무지개 물고기는 친구들에게 비늘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무지개 물고기와 놀아주지 않았어요. 무지개 물고기는 몹시 쓸쓸해졌어요. 외톨이가 된 무지개 물고기는 친구들에게 비늘을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비늘을 나누어 주자 친구들은 무지개 물고기 곁으로 모여 들었어요.</div>									
3. 친구들은 무지개 물고기에게 무엇을 나누어 달라고 했나요? () ① 바다 ② 비늘 ③ 친구 ④ 무지개									
구분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남학생	여학생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정답률	92.41	92.13	88.35	88.81	93.25	85.07	91.15	80.88	91.52
표준편차	26.50	26.94	32.10	31.54	25.11	35.90	28.41	39.62	27.86
t/F	5.562**(①>③*, ②>③*)			-4.000***		-1.374		-2.201*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나.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자신의 경험 말하기

문항 10은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에 대한 검사 항목으로, 자신의 경험을 사건 순서에 따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채점 시 일어난 차례에 맞게 말한 일의 가짓수에 따라 각각 1, 2, 3점을 부여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80.44%이며, 배경 변인 중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들(82.66%)이 남학생들(78.56%)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아래 제시된 표에서 이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검사 요소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자신의 경험 말하기	정답률	80.44	표준편차	33.54	변별도	0.559
10.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올 때까지 한 일을 세 가지만 순서대로 말해 보세요.							


구분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남학생	여학생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정답률	81.74	81.42	78.32	78.56	82.66	73.13	80.61	72.06	80.58
표준편차	32.44	32.33	35.66	34.18	32.58	39.88	33.36	38.89	33.39
t/F	2.709			-3.151**		-1.52		-1.789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다. 듣는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 말하기

문항 11의 3개 하위 문항은 ‘듣는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에 대한 검사 항목으로, 문항 11-(1)에서는 학생들이 칭찬 받을 때의 기분을 적절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95.67%이며, 배경 변인 중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소 도시의 학생들(97.01%)이 읍면지역의 학생들(94.00%)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아래 제시된 표에서 이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	듣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								
검사 요소	듣는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하기			정답률	95.67	표준편차	20.35	변별도	0.312
11. 그림을 보고, 그때의 기분을 생각하며 알맞은 말을 해 보세요.									
<div><div>(1)</div><div></div><div>선생님께 칭찬을 받아서_____</div></div>									
구분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남학생	여학생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정답률	96.05	97.01	94.00	95.67	95.81	92.54	95.81	95.59	95.72
표준편차	19.48	17.03	23.76	20.36	20.05	26.48	20.04	20.69	20.24
t/F	5.549**(②)③**)			-0.172		-1.004		-0.054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문항 11-(2)에서는 학생들이 화가 날 때의 기분을 적절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86.26%이며, 배경 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없었다.

아래 제시된 표에서 이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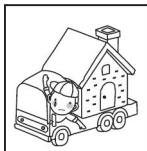
성취기준	듣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						
검사 요소	듣는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 말하기	정답률	86.26	표준편차	34.43	변별도	0.317
11. 그림을 보고, 그때의 기분을 생각하며 알맞은 말을 해 보세요.							
(2)							
		동생이 내 공책에 낙서를 해서_____					

구분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남학생	여학생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정 답 률	86.49	86.97	85.47	85.37	87.42	82.09	86.45	89.71	86.22
표준편차	34.20	33.68	35.26	35.35	33.17	38.63	34.23	30.61	34.48
t/F	0.471			-1.533		-1.026		0.825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문항 11-(3)에서는 학생들이 슬플 때의 기분을 적절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87.21%이며, 배경 변인 중 지역,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89.53%)와 중소도시(88.42%) 학생들이 읍면지역의 학생들(83.97%)에 비해, 여학생(89.21%)이 남학생(85.30%)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아래 제시된 표에서 이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	듣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								
검사 요소	듣는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하기			정답률	87.21	표준편차	33.40	변별도	0.372
11. 그림을 보고, 그때의 기분을 생각하며 알맞은 말을 해 보세요.									
(3)  내 친구 진호가 이사를 가서_____									
구분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남학생	여학생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정 답 률	89.53	88.42	83.97	85.30	89.21	77.61	87.47	88.24	87.17
표준편차	30.64	32.02	36.71	35.43	31.04	42.00	33.11	32.46	33.45
t/F	6.428** (①>③**, ②>③*)			-3.012**		-1.906		0.26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다음에서는 읽기 영역 전체에 대한 검사 결과와 이 영역에 속한 개별 문항의 검사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3. 영역별 검사 결과: 읽기 영역

읽기 영역의 검사 내용은 ‘받침이 없는 두 음절’, ‘세 음절 낱말을 소리 내어 읽기’, ‘다양한 자모음이 쓰인 낱말로 이루어진 글을 소리 내어 알맞게 띄어 읽기’ 등이다. 읽기 영역의 전체 평균은 3.6383점(배점 4점), 표준편차는 0.7968이다. 배경 변인에 따른 평균을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생들에 비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취학 전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그리고 일반 가정의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아래에 제시된 표에서 구체적인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6〉 읽기 영역 검사 결과(배점 4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지역	대도시(①)	659	3.7086	0.6730	10.167***
	중소도시(②)	1,105	3.6733	0.7572	①>③***
	읍면지역(③)	867	3.5409	0.9164	②>③**
성별	남	1,340	3.5634	0.8777	-5.028***
	여	1,288	3.7182	0.6922	
취학 전 교육	경험 없음	67	3.3433	1.1619	-2.126*
	경험 있음	2,554	3.6468	0.7836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68	3.3529	1.1688	-2.074*
	일반 가정	2,525	3.6487	0.7784	
전 체		2,635	3.6383	0.7968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읽기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별 검사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받침이 없는 두 음절 낱말을 소리 내어 읽기

문항 9-(1)은 ‘글자의 짜임을 이해하며 글자를 읽고,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에 대한 검사 항목으로, 학생들이 ‘아기’와 같이 받침이 없는 두 음절 낱말을 정확한 발음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98.71%이며, 배경 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없었다.

아래 제시된 표에서 이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자의 짜임을 이해하여 글자를 읽고,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검사 요소	받침이 없는 두 음절 낱말을 소리 내어 읽기			정답률	98.71	표준편차	11.29	변별도	0.364
9. 다음을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1) <div>아기</div>									
구분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남학생	여학생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정답률	99.24	98.91	98.04	98.36	99.07	94.03	98.83	94.12	98.89
표준편차	8.68	10.37	13.87	12.71	9.61	23.87	10.78	23.70	10.47
t/F	2.44			-1.619		-1.64		-1.656	

*p<.05, **p<.01, ***p<.001

나. 받침이 있는 세 음절 낱말을 소리 내어 읽기

문항 9-(2)는 ‘글의 짜임을 이해하여 글자를 읽고,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에 관한 내용으로, 학생들이 ‘공놀이’와 같이 받침이 있는 세 음절 낱말을 정확한 발음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94.04%이며, 배경 변인 중 지역,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의 학생들(96.36%)이 읍면지역의 학생들(91.81%)에 비해, 여학생(95.89%)이 남학생(92.31%)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아래 제시된 표에서 이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자의 짜임을 이해하여 글자를 읽고,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검사 요소	받침이 있는 세 음절 낱말을 소리 내어 읽기			정답률	94.04	표준편차	23.68	변별도	0.558
9. 다음을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2) <div>공놀이</div>									
구분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남학생	여학생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정답률	96.36	94.39	91.81	92.31	95.89	86.57	94.28	88.24	94.30
표준편차	18.75	23.02	27.44	26.65	19.87	34.36	23.22	32.46	23.19
t/F	7.145**(①)③**)			-3.905***		-1.827		-1.53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다. 다양한 자모음의 낱말로 구성된 글을 소리 내어 알맞게 띄어 읽기

문항 9-(3)은 성취기준 ‘글의 짜임을 이해하여 글자를 읽고,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에 대한 검사 항목으로, 학생들이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글을 정확하게 의미가 드러나도록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채점 시 글을 의미 단위로 띄어 읽은 경우는 2점, 글을 어절 단위로 띄어 읽은 경우는 1점을 부여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85.58%이며, 배경 변인 중 지역, 성별, 다문화 가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87.64%)와 중소도시(87.02%)의 학생들이 읍면지역의 학생들(82.22%)에 비해, 여학생(88.50%)이 남학생(82.84%)에 비해, 일반 가정의 학생들(85.88%)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76.47%)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아래 제시된 표에서 이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자의 짜임을 이해하여 글자를 읽고,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검사 요소	다양한 자모음이 쓰인 낱말로 이루어진 글을 소리 내어 알맞게 띄어 읽기			정답률	85.58	표준편차	25.01	변별도	0.669
9. 다음을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div>(3) <div>우리 가족은 동물원에 갔습니다. 돌고래가 헤엄치는 모습이 멋졌습니다.</div></div>									
구분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남학생	여학생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정답률	87.64	87.02	82.22	82.84	88.50	76.87	85.82	76.47	85.88
표준편차	27.62	27.85	32.55	32.05	26.23	37.27	29.24	38.12	29.12
t/F	8.573*** (①)③**, ②)③**)			-4.966***		-1.951		-2.018*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다음 절에서는 쓰기 영역 전체에 대한 검사 결과와 이 영역에 속한 개별 문항의 검사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4. 영역별 검사 결과: 쓰기 영역

쓰기 영역의 검사 내용은 ‘글자(낱말)를 듣고 쓰기’,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대상의 특징 드러나게 짧은 글 쓰기’ 등이다. 쓰기 영역의 전체 평균은 6.0478점(배점 8

점), 표준편차는 1.4316이다. 배경 변인에 따른 검사 결과를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생들에 비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취학 전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그리고 일반 가정의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아래에 제시된 표에서 구체적인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7〉 쓰기 영역 검사 결과(배점 8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지역	대도시(①)	659	6.2549	1.3030	33.498***
	중소도시(②)	1,105	6.1765	1.3114	①>③***
	읍면지역(③)	867	5.7313	1.6005	②>③***
성별	남	1,340	5.7507	1.4885	-11.246***
	여	1,288	6.3626	1.2972	
취학 전 교육	경험 없음	67	5.5224	1.8121	-2.423*
	경험 있음	2,554	6.0630	1.4182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68	5.3529	1.8101	-3.259**
	일반 가정	2,525	6.0741	1.3980	
전 체		2,635	6.0478	1.4316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쓰기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별 검사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받침이 없는 낱말을 정확하게 받아쓰기

문항 1-(1)은 ‘글자를 익혀 글씨를 바르게 쓴다.’에 대한 검사 항목으로, 학생들이 받침이 없는 낱말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97.84%이며, 배경 변인 중 지역,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98.48%)와 중소도시(98.64%)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생들(96.31%)에 비해, 여학생(98.60%)이 남학생(97.09%)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아래 제시된 표에서 이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	글자를 익혀 글씨를 바르게 쓴다.						
검사 요소	받침이 없는 낱말을 정확하게 받아쓰기	정답률	97.84	표준편차	14.55	변별도	0.456
1. 선생님께서 불러 주시는 낱말을 바르게 받아쓰세요.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1)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40px; margin: 0 10px;"></div>  </div>									
구분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남학생	여학생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정답률	98.48	98.64	96.31	97.09	98.60	94.03	97.92	95.59	98.02
표준편차	12.23	11.58	18.86	16.82	11.74	23.87	14.26	20.69	13.93
t/F	7.1443*(①>③*, ②>③**)			-2.682*		1.329		-.963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나. 받침이 있는 낱말을 정확하게 받아쓰기

문항 1-(2)는 ‘글자를 익혀 글씨를 바르게 쓴다.’에 대한 검사 항목으로, 학생들이 ‘얼굴’과 같이 받침이 있는 낱말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88.54%이며, 배경 변인 중 지역,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92.41%)와 중소도시(90.23%) 학생들이 읍면지역의 학생들(83.51%)에 비해, 여학생(92.24%)이 남학생(85.00%)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아래 제시된 표에서 이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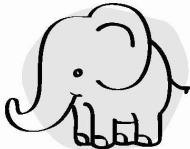
성취기준	글자를 익혀 글씨를 바르게 쓴다.								
검사 요소	받침이 있는 낱말을 정확하게 받아쓰기			정답률	88.54	표준편차	31.86	변별도	0.578
1. 선생님께서 불러 주시는 낱말을 바르게 받아쓰세요.									
<div>(2)</div> <div><div></div><div></div></div> <div></div>									
구분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남학생	여학생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정 답 률	92.41	90.23	83.51	85.00	92.24	86.57	88.61	82.35	88.87
표준편차	26.50	29.71	37.13	35.72	26.77	34.36	31.78	38.41	31.45
t/F	17.479*** (①>③***, ②>③***)			-5.891***		-0.517		-1.387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다. 다양한 자모음이 있는 낱말을 정확하게 받아쓰기

문항 1-(3)은 ‘글자를 익혀 글씨를 바르게 쓴다.’에 대한 검사 항목으로, 학생들이 ‘코끼리’와 같이 쌍자음이 있는 낱말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89.60%이며, 배경 변인 중 지역,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 학생들(92.11%)이 읍면지역의 학생들(88.12%)에 비해, 여학생(92.39%)이 남학생(86.87%)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아래 제시된 표에서 이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	글자를 익혀 글씨를 바르게 쓴다.								
검사 요소	다양한 자모음이 있는 낱말을 정확하게 받아쓰기			정답률	89.60	표준편차	30.53	변별도	0.433
1. 선생님께서 불러 주시는 낱말을 바르게 받아쓰세요.									
<div>(3)</div> <div><div></div><div></div><div></div></div> <div></div>									
구분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남학생	여학생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정 답 률	92.11	89.32	88.12	86.87	92.39	86.57	89.62	88.24	89.74
표준편차	26.98	30.90	32.37	33.79	26.52	34.36	30.50	32.46	30.35
t/F	3.302*(①)③*)			-4.673***		-0.807		-0.403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라. 이야기 속 인물을 상대로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문항 6은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에 대한 검사 항목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구성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채점 시 한 문장도 쓰지 못한 경우는 0점, 한 문장을 쓴 경우는 1점, 두 문장을 썼으나 단순 나열인 경우는 2점, 두 문장 이상을 쓰되 문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3점을 부여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45.78%이며, 배경 변인 중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다문화 가정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49.27%)와 중소도시(48.81%) 학생들이 읍면지역의 학생들(39.33%)에 비해, 여학생(52.95%)이 남학생(39.03%)에 비해, 취학 전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46.08%)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36.32%)에 비해, 일반 가정의 학생들(46.17%)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31.37%)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아래 제시된 표에서 이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검사 요소	들려준 이야기 속 인물을 상대로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정답률	45.78	표준편차	31.04	변별도	0.611
<div>🌈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잘 들어 봅시다 (3~6번, 3번 문항에 제시된 제재 참조).</div> <div>6. 무지개 물고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 보세요.</div> <div>-----</div> <div>-----</div>									
구분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남학생	여학생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정 답 률	49.27	48.81	39.33	39.03	52.95	36.32	46.08	31.37	46.17
표준편차	31.89	29.84	30.85	29.49	31.01	29.43	31.05	32.00	30.83
t/F	28.755*** (①)③***, ②)③***)			-11.784***		-2.545*		-3.900***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마.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 쓰기


문항 7의 2개 하위 문항은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쓴다.'에 대한 검사 항목들이다. 문항 7-(1)에서는 초등학교 입문기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글 수준이 아닌 문장 수준에서 '비행기는 빠르다.'와 같이 대상과 그 대상의 특징을 표현하여 쓰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95.71%이며, 배경 변인 중 지역, 성별, 다문화 가정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97.57%)와 중소도시(96.47%) 학생들이 읍면지역의 학생들(93.43%)에 비해, 여학생(97.05%)이 남학생(94.55%)에 비해, 일반 가정의 학생들(96.16%)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86.76%)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아래 제시된 표에서 이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쓴다.						
검사 요소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 쓰기	정답률	95.71	표준편차	20.26	변별도	0.532

7. <보기>에서 낱말을 찾아 짧은 글을 쓰세요.


<보기> 뜨겁다, 빠르다, 달콤하다, 말랑하다

(1)									
									
비행기는 _____									
구분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남학생	여학생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정답률	97.57	96.47	93.43	94.55	97.05	88.06	95.93	86.76	96.16
표준편차	15.40	18.46	24.80	22.70	16.93	32.67	19.77	34.14	19.22
t/F	9.188*** (①)③***, ②)③**)			-3.205**		-1.962		-2.259*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문항 7-(2)은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쓴다.'에 대한 검사 항목이다. 문항 7-(1)과 같은 이유에서 '불은 뜨겁다.'와 같이 문장 수준에서 대상과 그 대상의 특징을 표현하여 쓰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95.75%이며, 배경 변인 중 지역,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97.12%)와 중소도시(96.56%) 학생들이 읍면지역의 학생들(93.77%)에 비해, 여학생(97.13%)이 남학생(94.48%)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아래 제시된 표에서 이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쓴다.								
검사 요소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 쓰기			정답률	95.75	표준편차	20.18	변별도	0.528
7. <보기>에서 낱말을 찾아 짧은 글을 쓰세요.									
<div><div><보기> 뜨겁다, 빠르다, 달콤하다, 말랑하다</div></div>									
(2)									
<div></div>									
불은 _____									

구분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남학생	여학생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정 답 률	97.12	96.56	93.77	94.48	97.13	88.06	95.97	88.24	96.12
표준편차	16.75	18.23	24.18	22.85	16.71	32.67	19.68	32.46	19.32
t/F	6.644** (①)③**, ②)③**)			-3.403**		-1.972		-1.993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다음 절에서는 문법 영역 전체에 대한 검사 결과와 이 영역에 속한 개별 문항의 검사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5. 영역별 검사 결과: 문법 영역

문법 영역의 검사 내용은 ‘받침이 없는 글자의 짜임 알고 쓰기’,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알고 쓰기’ 등이다. 문법 영역의 전체 평균은 1.8087점(배점 2점), 표준편차는 0.4981이다. 배경 변인에 따른 검사 결과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 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지역,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래에 제시된 표에서 구체적인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8〉 문법 영역 검사 결과(배점 2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지역	대도시(①)	659	1.8270	0.4842	1.425
	중소도시(②)	1,105	1.8163	0.4869	
	읍면지역(③)	867	1.7866	0.5215	
성별	남	1,340	1.7791	0.5359	-3.320***
	여	1,288	1.8432	0.4480	
취학 전 교육	경험 없음	67	1.6418	0.7114	-1.960
	경험 있음	2,554	1.8132	0.4912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68	1.6912	0.6291	-1.585
	일반 가정	2,525	1.8131	0.4923	
전 체		2,635	1.8087	0.4981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문법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별 검사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받침이 없는 글자의 짜임을 알고 쓰기

문항 2-(1)은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에 대한 검사 항목으로, 학생들이 ‘소’와 같이 받침이 없는 글자의 짜임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문항의 정답률은 94.57%이며, 배경 변인 중 성별에 따라 여학생(95.73%)이 남학생(93.58%)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 내에서 더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아래 제시된 표에서 이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검사 요소	받침이 없는 글자의 짜임을 알고 쓰기			정답률	94.57	표준편차	22.66	변별도	0.415
2. 보 기 와 같이 낱자에 ○표 하고 글자를 만들어 쓰세요.									
(1)									
<div></div>									
구분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남학생	여학생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정 답 률	94.84	94.93	93.89	93.58	95.73	86.57	94.75	91.18	94.69
표준편차	22.14	21.94	23.97	24.52	20.23	34.36	22.30	28.57	22.42
t/F	0.581			-2.454*		-1.94		-1.007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나.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알고 쓰기


문항 2-(2)는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에 대한 검사 항목으로, 학생들이 ‘밤’과 같이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86.30%이며, 배경 변인 중 성별, 취학 전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88.59%)이 남학생(84.33%)에 비해, 취학 전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86.57%)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77.61%)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아래 제시된 표에서 이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검사 요소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알고 쓰기	정답률	86.30	표준편차	34.39	변별도	0.501

2. **보기**와 같이 낱자에 ○표 하고 글자를 만들어 쓰세요.

(2)



ㅂ, ㅎ, ㅈ, ㅣ, ㅁ, ㄷ

구분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남학생	여학생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정답률	87.86	86.70	84.78	84.33	88.59	77.61	86.57	77.94	86.61
표준편차	32.68	33.98	35.95	36.37	31.81	42.00	34.10	41.77	34.06
t/F	1.607			-3.199**		-1.731***		-1.697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다음 절에서는 문학 영역 전체에 대한 검사 결과와 이 영역에 속한 개별 문항의 검사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6. 영역별 검사 결과: 문학 영역

문학 영역의 검사 내용은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 파악하기’, ‘작품 속 인물 상상하기’, ‘말의 재미를 주는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 표현하기’ 등이다. 문학 영역의 전체 평균은 1.9556 점(배점 3점), 표준편차는 0.8748이다. 배경 변인에 따른 검사 결과를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생들에 비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취학 전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일반 가정의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 내에서 더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아래에 제시된 표에서 구체적인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9〉 문학 영역의 검사 결과(배점 3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지역	대도시(①)	659	2.1047	0.8341
	중소도시(②)	1,105	1.9683	0.8544
	읍면지역(③)	867	1.8281	0.9127
성별	남	1,340	1.8567	0.8925
	여	1,288	2.0637	0.8412
취학 전 교육	경험 없음	67	1.5970	1.0453
	경험 있음	2,554	1.9640	0.8683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68	1.7353	0.9403
	일반 가정	2,525	1.9675	0.8707
전체	2,635	1.9556	0.8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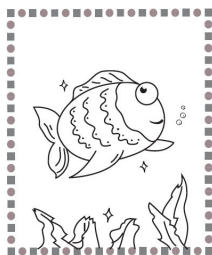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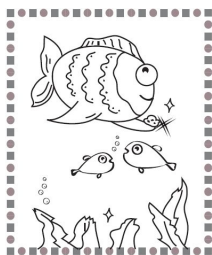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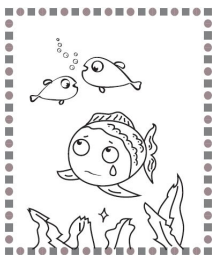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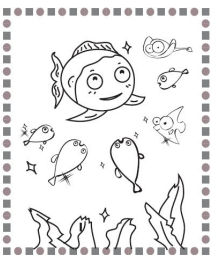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문학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별 검사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들려준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 부분 파악하며 작품 이해하기

문항 4는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에 대한 검사 항목으로, 학생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44.02%이며, 배경 변인 중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의 학생들(49.77%)이 중소도시(43.08%)와 읍면지역(41.06%)의 학생들에 비해, 여학생(47.36%)이 남학생(40.97%)에 비해, 취학 전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44.32%)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31.34%)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아래 제시된 표에서 이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검사 요소	들려준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 부분 파악하며 작품 이해하기			정답률	44.02	표준편차	49.65	변별도	0.315
<div>🌈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잘 들어 봅시다 (3~6번, 3번 문항에 제시된 제재 참조).</div> <div>4. 이야기의 내용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야기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div> <div><div><p>(1)</p></div><div><p>()</p></div><div><p>()</p></div><div><p>()</p></div></div>									
구분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남학생	여학생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정 답 률	49.77	43.08	41.06	40.97	47.36	31.34	44.32	39.71	44.44
표준편차	50.04	49.54	49.22	49.20	49.95	46.74	49.69	49.29	49.70
t/F	6.181** (①)②*, ①)③**)			-3.303**		-2.240*		-0.761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나. 들려준 이야기 속 인물의 마음 상상하기

문항 5는 ‘작품 속 인물의 마음, 모습, 행동을 상상한다.’에 대한 검사 항목으로, 학생들이 문학 작품 감상 시 사건과 인물을 연결 지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물의 행동이 바뀔 때 따라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사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84.82%이며, 배경 변인 중 지역, 취학 전 교육 여부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 학생들(88.62%)이 읍면지역 학생들(82.35%)에 비해, 취학 전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85.12%)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70.15%)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아래 제시된 표에서 이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	작품 속 인물의 마음, 모습, 행동을 상상한다.								
검사 요소	들려준 이야기 속 인물의 마음 상상하기			정답률	84.82	표준편차	35.89	변별도	0.335
5. 친구들에게 비늘을 나누어 준 후에 무지개 물고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									
<div><div>①</div><div></div><div>행복했어요.</div></div> <div><div>②</div><div></div><div>슬펐어요.</div></div>									
<div><div>③</div><div></div><div>화가 났어요.</div></div> <div><div>④</div><div></div><div>지루했어요.</div></div>									

구분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남학생	여학생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정 답 률	88.62	84.43	82.35	84.18	85.56	70.15	85.12	80.88	84.95
표준편차	31.78	36.27	38.14	36.51	35.16	46.11	35.59	39.62	35.76
t/F	5.818**(①)③**)			-0.987		-2.638*		-0.923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다. 말의 재미를 주는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 표현하기

문항 8은 '말의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주는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다.'에 대한 검사 항목으로, 학생들이 재미를 주는 말을 문장의 맥락에 어울리게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문항의 정답률은 66.72%이며, 배경변인 중 지역, 성별, 다문화 가정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72.08%)와 중소도시(69.32%)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생들(59.40%)에 비해, 여학생(73.45%)

이 남학생(60.52%)에 비해, 일반 가정의 학생들(67.37%)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52.94%)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성취기준	말의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주는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다.								
검사 요소	말의 재미를 주는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 표현하기			정답률	66.72	표준편차	47.13	변별도	0.561
8. <보기>와 같이 주어진 낱말을 넣어 짧은 글을 지어 보세요.									
<div><div>_____ <보 기> _____</div><div>나는 <u>깡충깡충</u> 뛰었습니다.</div></div>									
_____ 방글방글 _____.									
구분	지역			성별		취학 전 교육 여부		다문화 가정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남학생	여학생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정 답 률	72.08	69.32	59.40	60.52	73.45	58.21	66.95	52.94	67.37
표준편차	44.90	46.14	49.14	48.90	44.18	49.69	47.05	50.28	46.90
t/F	16.599*** (①)③***, ②)③***)			-7.115***		-1.424		-2.338*	

*p<.05, **p<.01, ***p<.001,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IV. 결론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입문기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국어 능력 검사 요소를 중심으로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 검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19개 문항 중 16개 문항에 걸쳐 초등 입문기 학생들이 8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 중 8개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90% 이상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18개 문항 중 1개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률 70% 미만, 2개 문항에 대해서는 50% 미만을 나타냈다.

정답률 범위에 따른 검사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0〉 정답률 범위에 따른 검사 요소

정답률 범위	문항 수	문항번호	검사 요소
95% 이상	5문항	1-(1) 7-(1) 7-(2) 9-(1) 11-(1)	· 받침이 없는 낱말 듣고 쓰기 ·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 쓰기 ·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 쓰기 · 받침이 없는 낱말을 소리 내어 읽기 · 칭찬 받을 때의 기분 적절히 말하기
90% 이상 95% 미만	3문항	2-(1) 3 9-(2)	· 받침이 없는 글자의 짜임 알고 쓰기 ·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내용 확인하기 · 받침이 있는 낱말을 소리 내어 읽기
85% 이상 90% 미만	6문항	1-(2) 1-(3) 2-(2) 11-(2) 11-(3) 9-(3)	· 받침이 있는 낱말 듣고 쓰기 · 쌍자음이 들어간 낱말을 듣고 쓰기 ·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 알고 쓰기 · 화가 날 때의 기분 적절히 말하기 · 슬플 때의 기분 적절히 말하기 · 문장을 소리 내어 읽기
80% 이상 85% 미만	2문항	5 10	· 작품 속 인물의 마음, 모습, 행동 상상하기 ·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듣고 말하기
70% 이상 80% 미만	0문항		
65% 이상 70% 미만	1문항	8	· 말의 재미를 주는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 표현하여 쓰기
50% 이상 65% 미만	0문항		
45% 이상 50% 미만	1문항	6	·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기
40% 이상 45% 미만	1문항	4	·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 파악하기

각 영역별로 드러나는 검사 결과에서의 특징을 기술하면 첫째, 듣기·말하기 영역의 경우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에서 학생들이 80.44%의 정답률을 나타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듣기·말하기 영역에 속한 다른 문항의 정답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을 추론해 보면, 이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한 초등학교에서 관찰했을 당시, 해당 문항이 제시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과거의 일을 말할 내용으로 떠올리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보였다. 따라서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의 성취기준은 [1-2학년군] 안에 묶인 듣기·말하기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들에 비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므로 1학년보다는 2학년 수준에 보다 적합한 성취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읽기 영역 및 쓰기 영역의 경우 문항이 제시하는 과제의 복잡도에 따라 정답률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어의 자모음 조합이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과제가 문장 단위로 넘어갈수록, 학생들은 읽기와 쓰기에서 어려움을 보였다. 받침이 없는 단자음과 단모음으로 이루

어진 낱말을 읽고 쓰는 문항에서 학생들은 정답률 95% 이상을 나타냈으나, 나머지 5%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아기’나 ‘모자’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낱말 또한 읽고 쓰지 못한다는 점에서 초등 학교 입문기 학생들에게 기초 읽기 능력 및 기초 쓰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성취기준의 설정은 여전히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읽기 영역 및 쓰기 영역의 검사 결과를 보면 초등 입문기 학생들이 ‘아기’에 비해 ‘공놀이’와 같이 받침이 있는 낱말을 읽는 과제, ‘아기’와 같은 단어보다 문장을 읽는 과제, ‘모자’에 비해 ‘코끼리’와 같이 쌍자음이 쓰인 낱말을 쓰는 과제, ‘모자’에 비해 ‘얼굴’과 같이 받침이 있는 낱말을 쓰는 과제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수준의 자모 조합이 이루어진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읽기 문항에 비해 쓰기 문항에서 더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 점은 초등 입문기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고려한 국어과 교육과정 설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학생들의 언어 발달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과서 단원별 학습 시기를 고려하여 낱말의 복잡도가 체계적으로 등장, 증가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학 영역의 검사 결과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 부분을 파악하며 작품 이해하기’에 대한 문항에서 학생들은 44.02%의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모든 문항에 걸쳐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경우이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학생들이 사건의 전개에 따라 이야기의 전, 중, 후를 구분한 후 이야기의 순서를 그림과 연결 지어 파악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초등 입문기 학생들을 위한 국어과 교육과정 설계 시 이야기의 순서나 전후 관계를 인식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관한 학습 내용의 도입은 적어도 [1-2학년군] 적용 시기 중 후반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문항 정답률 45.78%를 나타낸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기’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성취기준으로 볼 수 있다.

2. 초등 입문기 학생 변인을 중심으로

초등 입문기 국어 능력 검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특징적인 사안들을 변인별로 정리하면 먼저, 본 검사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변인은 성별임이 드러났다. 전체 19개 문항 중 15개 문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이는 학교 국어 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점부터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는 국어 능력의 차이가 존재함을 말해 준다.

본 검사 결과에서 성별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변인은 지역임이 드러났다. 전체 19개 문항 중 14개 문항에서 읍면지역보다 중소도시, 대도시로 갈수록 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의 평균 차이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포함한 도시 지역 학생들과 읍면 지역 학생들 사이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 내에서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이

는 읍면 지역에 사는 초등 입문기 학생들의 국어 능력이 도시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취학 전 교육 변인은 본 검사 결과 전반에 걸쳐 성별이나 지역에 비해 상대적 유의미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학 전 교육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인 경우는 전체 19개 문항 중 4개 문항에 해당된다. 해당 문항은 쓰기(1개), 문법(1개), 문학(2개) 영역에 속한 검사 문항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검사 내용은 ‘이야기 속 인물을 상대로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쓰기)’,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알고 쓰기(문법)’, ‘들려준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 부분 파악하며 작품 이해하기(문학)’, ‘들려준 이야기 속 인물의 마음 상상하기(문학)’ 등이다. 이로 보건대 취학 전 교육 경험이 보다 복잡한 조합의 낱자 쓰기, 문학 작품 속 사건의 전개 이해, 문학 작품 속 인물 이해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변인은 전체 19개 문항 중 5개 문항에서 해당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성별 변인이나 지역 변인에 비해 상대적 유의미성은 크지 않으나,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일반 가정의 학생들에 비해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의 공통점을 볼 수 있었다.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보인 5개 문항 중 3개 문항이 쓰기와 관련된 문항이었다. 또한 읽기의 경우는 낱말 수준에서는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문장 수준의 읽기 문항에서는 일반 가정의 학생들에 비해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따라서 초등 입문기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고려한 국어과 교육과정 설계 시 다문화 가정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 쓰기 영역의 내용 구성에 대한 보다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 교육과학기술부(2011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
- 교육과학기술부(2011b).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0호.
- 교육과학기술부(2011d).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106호에 따른 5세 누리과정 해설서**.
- 김대행(2002). 국어교과학을 위한 언어 재개념화. **선청어문**, 30, 25-94.
- 김봉순(2011).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문식성 발달. **공주교대논업**, 46(2), 25-56.
- 노명완, 이형래(2005). 직업 문식성 연구 - 9, 5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13, 62-100.
- 박수자(1996). 초등학교 국어과 언어능력 평가에서 빈칸메우기검사(cloze test)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12, 167-221.
- 박인기(2002).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5, 23-54.
- 박정진(2005). 빈칸메우기 검사의 타당성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28, 67-90.
- 백경선, 박순경, 권점례, 구영산(2012).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 수학 교육과정의 수준 적합성 제고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2-3**.
- 심영택(2010). 초등학교 저학년 기초 문식성 교수 학습 방법: ‘개미[H]와 베짚이[네]’ 가르치기. **한국초등국어교육**, 42, 130-161.
- 윤여탁, 최미숙, 김정자, 정현성, 송여주 외(2008).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형래(2008). 국가 수준 “국어/언어 능력 검사”의 비판적 검토: 직업문식성 평가로서의 9급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 분석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1, 167-210.
- 정현선(2007). 기호와 소통으로서의 언어관에 따른 매체언어교육의 목표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연구**, 19, 97-138.
- 정혜승(2010). 초등학교 저학년 문식성 교육과정의 향방. **한국초등국어교육**, 42, 186-216.
- 최인자(2001). **국어교육의 문화론적 지평**. 소명출판.

Whitehurst, G. J., & Lonigan, C. J. (2002). Emergent literacy: Development from prereaders to readers. In S. B. Nueman & D. K. Dickinson (Eds.), *Handbook of Early Literacy Research*, 11-29. New York: Guilford Press.

· 논문접수 : 2013-05-01/ 수정본접수 : 2013-06-10/ 게재승인 : 2013-06-19

ABSTRACT

Investigation of Korean language competence of early first-grade students

Young-San Goo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The study administered diagnostic tests to students before the course began. The study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rom the diagnostic tests related to KLAE. (1) Students consistently had difficulty when asked to verbally report what they did before they came to school on that day. (2) In the section on reading, writing, and grammar, students had difficulty comprehending unusual vocabulary and long sentences. (3) In the section on literature, students had great difficulty when asked to report the order of events in a story that they had read. I suggest that this task—reporting the order of events in a story—is too difficult for K- and 1st-grade level students, and should not be taught until later. (4) The best predictors of performance on the diagnostic tests were, first, gender(girls performed better), and second, region.

Key Words : early first-grade students, Korean language competence, a starting point in Korean language arts curriculum